**자유를 위한 진리: 말, 집, 아버지**

**<요한복음 8장 31-38절>**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스스로 自’자에 ‘말미암을 由’자, “나의 모든 행동이 나 자신에게서 말미암는 상태”를 일컬어 보통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주위에 피해주지 않으려 늘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주위의 강제에 의해 억지로 하는 일이거나, 사회에서의 자기 위신이 손상되는 게 두려워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면, 그건 ‘자유로운’ 삶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주위 사람이나 환경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 자신은 본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위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그런 삶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만약 자유로운 삶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러한 자유는 더이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 힘들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 자유’는 그 결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속이나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freedom)’는 그 속에 ‘해방(liberation)’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나를 구속하거나 얽어매고 있던 부정적인 것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전엔 해내지 못했고 심지어 바라지도 못했던 긍정적인 일들을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의지로 행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자유롭게 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의미의 ‘자유’를 원치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문제는 ‘이 참 자유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쉽지만은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참 자유’의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 자유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32절에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진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언제나 참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삶을 위한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자유를 위한 진리’란 무엇이며, 그것(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키워드는 **‘말’**입니다. 본문 31-32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앞절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합니다. 여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란 그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의 뉘앙스로 보건대, 예수님은 그들이 그 상태 그대로 충분하다 생각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열림, 그 ‘믿음’에 이어, 그들에게 더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 – 제자 – 진리 - 자유*

마치 이것은, 앞엣 것이 뒤엣 것을 가능케 하고, 다시 그것이 그 다음 것을 가능케 하는 단계적 연쇄구조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에서 비롯되고, ‘진리를 아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에서 비롯되고,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분을 믿게 된 사람’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이라 해서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거한다’로 번역된 단어를 다른 영어성경들에서는 ‘hold’ 혹은 ‘abide in’ 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혹은 가르침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가르침을 꼭 ‘붙잡는’ 것, 혹은 그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자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붙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상황이 좋을 때만 예수님 편에 서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자기를 세우려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리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 계시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리는 계시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예수님이 서 있고, 자기 앞에 성경이 놓여 있어도, 그들은 거기서 진리와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고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확히 계시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지금 내가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는 예수님과의 생생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는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주어집니다. 진리의 빛이 환히 비쳐진 곳에서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진리는 지금 내가 속한 현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간 나를 지배하며 얽어매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신 뜻’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길 소망하게 되고, 마침내 진리 안에서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의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말’에 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을 붙들고, 그 말 속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참된 말은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집’**입니다. 본문 35-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사람들은 집을 통해 안정감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약한 분들을 보면 특히 집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유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은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었고, 그 후에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방나라들의 압제 아래 있었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제국의 속국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있다고 우릴 종으로 보는가? 누가 뭐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로마가 힘으로는 우릴 종처럼 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은 그 누구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자유’니 ‘구원’이니 얘기하면서 나를 귀찮게 하는가?* 그런데, ‘내가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내가 자유로운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자유롭지 않다고 보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상태 그대로 있는 한, 너희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인가? 37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가 마음이 바뀐 사람들에 대해 하신 말씀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하마르티아)에 담긴 의미 그대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과녁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의 안전과 자유가 위협받는다 느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요11:48)

예수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서 로마가 유대나라를 전멸시키는 상황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의 안전과 자유를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인물로 비쳐졌던 것이죠.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 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겐 자기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쳐져 죽이려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상황을 정확히 간파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자기 집’에서 내몰려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바꿔주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집을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참으로 안전하고 영원한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언제나 주인으로부터 받을 보상이나 처벌을 염두에 두고 주인에게 반응합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 거하면서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거합니다. 그래서 종은 최소한의 자기 안전과 자유를 확보할 길을 스스로 뒤로 마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기반 위에서는 온전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쫓겨나리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설령 그 집을 떠나게 돼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아들은 두려움 속에서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반응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며 그분의 자유를 드러낸 방식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요10:17-18)

이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요1:12).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리는 자유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집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한, 결국 우리에겐 돌아갈 처소가 있고, 거기서 우릴 기다리시며 맞이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처럼 자유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예비된 집을 생각하며 든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참된 집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지막 셋째 키워드는 **‘아버지’**입니다.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버지는 그 사람이 속한 세계와 거기 영향을 미치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그의 영향력 아래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그들 사이의 차이는 다만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 그러면 그들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처음에 그들은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 주장합니다. 이 속엔 그들의 민족적 자존심이 들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내 나라, 내 민족을 자기 우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그들의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속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어 그들은 자기 아버지는 ‘유일신 하나님’이라 주장합니다. 이 속엔 그들의 종교적 자존심이 들어 있지요. 마찬가지로, 내 신념, 내 철학을 자기 우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 그들의 아비는 하나님도 아니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제 그들의 아비는 누구란 말입니까? 본문 4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충격이지요…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들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속하여 영향받고 있는 세계가 그 마귀의 세계란 뜻입니다. 그 마귀의 세계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그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며 산다 하십니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합니다. 그는 폭력의 아비입니다.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그의 Language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Language가 있듯이,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의 언어는 ‘거짓말’이란 얘깁니다. 따라서, 그 마귀의 세계에 속해 사는 사람들끼리는 ‘거짓말’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반면 그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의 의사소통에는 심각한 장애가 초래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3)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요점은 분명합니다. 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거짓과 폭력과 욕심이 지배하는 세계와, 의와 기쁨과 평화가 지배하는 세계. 우리는 이 두 세계 중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그 세계 속에서, 그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그 세계의 특성과 영향력을 따라 형성되며 행동합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우주를 바꿔주러 오셨습니다!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옛 질서에 속한 삶에서 새 질서에 속한 삶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의할 것은,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 사이의 경계선은 어딘가에 눈에 보이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악하고 저 하늘의 것들은 모두 선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은 모두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모두 선하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를 어떻게 알아보고 거기 속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 그 길 위에서 그 세계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형성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세계, 어느 우주에 속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보고 들으며 사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과 폭력의 아비 아래 사는 삶 속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언제나 자유를 약속하지만 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릴 배반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거짓 아비를 따라 인간이 만든 좁은 세계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자기의 자유를 그 거짓 아비에게 스스로 헌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마귀의 나라는 점점 멸망해가는 나라, 결국 사라질 나라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하여 영광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낼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 속에 거하는 우리들을 참 자유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자유의 삶을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랑스럽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참된 아버지는 곧 온 우주의 주권자 우리**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자유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도, 진리 안에 거하려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들,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속에 거하십시오. 자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